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Urban Environmental Changes

주 저 자 : 안승한 (An, Seung Han)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이재규 (Lee, Jae G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교수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5.4.321>

접수일 2025. 11. 16. / 심사완료일 2025. 11. 23. / 게재확정일 2025. 12. 08. / 게재일 2025. 12. 30.

Abstract

This study took as its problem awareness the influence of modern urban physical and climatic changes on citizens' mental health, and performed an analysis to interpret public facilities as a psychological medium. Based on Gestalt psychology, color psychology, and environmental psychology,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of public facilities were derived, and the influence of form, color, and environmental elements on stability, vitality, and recovery was clarified through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urves, low-chroma colors, and natural materials enhanced stability, non-regular structures, high-chroma colors, and bright lighting enhanced vitality, and natural elements and open views enhanced recover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ategorized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public facilities into stability type, vitality type, and recovery type,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tegrated public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citizens' psychological well-being.

Keyword

Urban Environmental(도시환경), Public Facilities(공공시설물), 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심리적 환경요소)

요약

본 논문은 현대 도시의 물리적, 기후적 변화가 시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삼아, 공공시설물을 심리적 매개장치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형태심리학, 색채심리학, 환경심리학을 기반으로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도출하고,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형태, 색채, 환경 요소가 안정, 활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곡선과 저채도 색상, 자연재료는 안정감을, 비정형 구조와 고채도 색채, 밝은 조명은 활력을, 자연요소와 개방된 시야는 회복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을 안정형, 활력형, 회복형으로 유형화하고, 시민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적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도시환경 변화와 심리
- 2-2. 심리학의 유형과 이론적 특성
- 2-3. 공공시설물의 정의와 디자인요소

3. 사례 조사 및 분석

- 3-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사례 조사 개요
- 3-2.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한 심리적 영향 분석
- 3-3. 유형별 특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향성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환경은 인구의 집중과 산업화의 가속으로 인해 물리적, 기후적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과밀화, 소음, 시각적 자극, 부족한 녹지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증폭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시계획 전반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이 시민의 심리적 안녕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도시환경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역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폭염, 홍수, 태풍, 산불,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생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고온 환경은 인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폭력적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후적 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²⁾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도시변화의 물리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을 위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단순히 기능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설로의 역할만이 아닌,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는 심리적 매개장치의 역할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능적 효율성이나 도시미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설물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이론적 틀로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 색채심리학(Color Psychology),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시설물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요소를 탐색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심

리적 환경요소(Psych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를 고찰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심리학적 관점을 토대로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고찰하고 그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된 형태심리학, 색채심리학, 환경심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디자인 요소를 이론적으로 도출한다. 둘째, 국내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여 각 이론이 실제 시설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사례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여될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 환경 변화와 심리

현대 도시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생활 기반의 물리적 변화를 넘어, 시민의 정신적 안정감과 정서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의 가속화와 인구 집중에 따른 환경적 복잡성의 증가에서 비롯되며, 소음, 밀집된 주거 환경, 채광 부족, 녹지 감소 등은 일상 속에서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외적 자극으로 기능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같은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요인과 같은 외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며, 그중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정신건강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도시의 물리적 환경 구조와 사회적 조건의 질적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도시의 물리적 구조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의 매개체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공디자인과 도시계획의 목표가 물리적 편의 제공을 넘어 심

1) 임은정,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 주택도시연구, 2021, Vol.11, No.3, p.80.

2) 백주하, 김혜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08, No.334, pp.4-12

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구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³⁾

한편, 도시환경의 변화는 기후적 요인에서도 인간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폭염,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것 만으로도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의 심리적 근거를 설명하며, 기온 상승은 신체적 탈진뿐 아니라 심리적 피로를 초래하고, 공격적 사고와 사회적 폭력성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기후변화는 인간의 정서적 안정감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학적·행동과학적 관점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⁴⁾

따라서 도시환경의 물리적·기후적 변화는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도시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배경을 넘어, 인간의 정신건강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심리적 구조로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심리학의 유형과 이론적 특성

본 절에서는 도시환경 변화가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 심리학적 이론의 틀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심리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 중, 본 연구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 색채심리학(Color Psychology),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을 핵심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이 세 이론은 각각 인간의 지각적 인식, 정서적 반응, 환경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관점으로, 공공시설물이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2-1. 형태심리학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형태심리학은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The

whole is other than the sum of its parts)”는 원리에 기반하여, 인간이 시각적 자극을 개별 요소로 인식하기보다 전체적인 구조나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⁵⁾ 이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에서 지금까지의 개별적 제품디자인 측면에서 벗어나 경관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각적 질서감과 조화로운 공간구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형태심리학의 주요 원리 중 그룹핑 원리(Principle of Grouping)인 근접성의 원리(Principle of Proximity), 유사성의 원리(Principle of Similarity), 폐쇄성의 원리(Principle of Closure), 연속성의 원리(Principle of Continuation), 공동운명의 원리(Principle of Common Fate)는 배경에서 분리된 전경을 의미하는 형태로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조직적 정보 전달을 위해 시각적으로 묶어주는 원리이다.⁶⁾ 이용자가 시설물을 지각하고 공간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리듬과 질서를 가진 시설물 배치는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공간의 통일감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형태적 디자인은 단순히 구조적 안정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곡선형 구조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직선형 구조는 질서와 단정함을 상징하며, 이러한 형태적 차이는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심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시각적 질서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2-2. 색채심리학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색채심리학은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색상과 색조를 연구하는 학문⁷⁾으로, 색채는 눈의 망막을 통해 감각되는 물리적 현상인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복합적 경험으로 작용한다.⁸⁾ 이러한 색채는

5) Wikipedia, Gestalt psychology, (2025.10.16)
https://en.wikipedia.org/wiki/Gestalt_psychology

6) 김건동, ‘개슈탈트 시지각 원리에 따른 정보의 의미 생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2, Vol.32, No.1, p.134-136 참조 재정리.

7) Wikipedia, Color psychology, (2025.10.16)
https://en.wikipedia.org/wiki/Color_psychology

8) 이채영, 박연선, ‘색채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개인의 스트레스 완화비교’, 기초조형학연구, 2013, Vol.14, No.5, p.422-423.

3) 임은정, op.cit., p.80-90 참조 재정리.

4) 문성원,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6, Vol.32, No.3, p.239-244.

단순히 시각적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지각,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자극으로 이해되며, 물리적, 심리적 요인이 결합된 환경요소로서 인간의 정서적 반응과 공간 인식에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색채의 지각이 생리적 반응을 유발함과 동시에 심리적 감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생리적 자극이 감정적 반응으로 전이되는 과정 안에서 환경 내 색채 자극이 개인의 성향과 주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낸다⁹⁾'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색채는 인간의 감정적 안정이나 긴장을 조절하는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색채 자극은 그 속성에 따라 생리적 반응의 방향을 달리한다. 따뜻한 색조(적색)는 에너지와 긴장감을 높여 활동성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반면, 차가운 색조(청색, 녹색)는 알파파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심리적 안정과 이완을 돕는다.¹⁰⁾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색채는 인간의 신체적 반응과 정서 상태를 동시에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공시설물의 색채 계획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도시환경에서 색채는 시각적 피로를 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저명도, 저채도의 자연색을 중심으로 한 색채계획은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 이미지를 형성한다¹¹⁾'는 주장은 대다수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환경 속 공공시설물의 색채가 인간의 정서적 반응과 조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색채심리학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핵심적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전제는 색채가 기능적 명료성과 심리적 쾌적성의 균형을 이루는 매개체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색채 계획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환경적 조화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3. 환경심리학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환경심리학은 인간과 외부 세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환경이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심리학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는 포괄적 틀을 제공하며, 그 핵심은 인간-환경 상호작용(human-environment interaction)에 있다. 이는 공공공간에서의 이용자 행동, 정서적 반응, 사회적 교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¹²⁾ 이용자와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용자 간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며, 공공시설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공간의 본질적 가치에 순응하면서 안정감을 형성하는 환경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이용자가 잠시 머무르며 휴식하고 주변을 지각하는 장소로 기능하지만, 현실의 설치 방식은 타성적이고 편의적인 배치에 머무르고 있다.¹³⁾ 이러한 논의는 공공디자인이 물리적 형태의 완성보다 인간의 지각, 감정, 행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의 심리적 회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복환경지각의 하위요인인 벗어남, 넓이감, 매혹감, 적합성이 모두 스트레스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 적합성과 벗어남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채광, 개방감, 자연요소 등 공공시설물의 공간적 특성이 이용자의 정서 안정과 회복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 리듬이 빨라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었으며, 이는 사람의 심리 및 생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⁴⁾

결국 환경심리학은 공공시설물의 설계가 심리적 회복, 사회적 교류, 공간적 편안함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완성을 넘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심리적 환경디자인(psychological environmental design)으로 확장되어

9) 이도선, 박준휘, 'CPTED 적용에 있어서 색채활용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2018, Vol.9, No.2, p.43.

10) 홍근주, 이동희, 김수미, 이범천, 안성관, '컬러테라피가 스트레스와 뇌파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뷰티 화장품학술지, 2009, Vol.9, No.1, p.55-56.

11) 이재용,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색채 활용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79-99.

12) Wikipedia, Environmental psychology, (2025.10.16) https://en.wikipedia.org/wiki/Color_psychology

13) 최민석, '환경심리학 관점으로 한 수변공원 착좌시설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3, Vol.18, No.4, p.29.

14) 방미칭, 강재철, '도시공원에서 청년층의 회복환경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중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리서치, 2021, Vol.6, No.1, p.110-111.

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4.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형태심리학, 색채심리학, 환경심리학은 각각 지각적 인식, 정서적 반응, 환경 적응이라는 상이한 차원에서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기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세 이론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구성하는 상보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들 세 가지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심리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3. 공공시설물의 정의와 디자인요소

2-3-1. 공공시설물의 정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제3항에는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⁵⁾ 이처럼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편의와 복지, 안전 및 정보전달을 위해 설치된 물리적 장치로서,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의 구성요소이자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 이해된다. 도시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시설물은 로렌스 핼프린(Lawrence Halprin)이 정의한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부속물(furnishing the street)’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에쿠안 켄지(榮久庵 憲司)가 제시한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옥외시설’로 기능한다. 또한 니시자와 타케시(1992)는 이를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자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생활장치’로 확장하여, 인간의 생활과 공간,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요소로 보았다.¹⁶⁾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또는 ‘가로환경시설’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한국지방자치법」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은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공간에서 인간의

심리적·행태적 요구를 수용하고 쾌적성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의 핵심 매개체라 할 수 있다.¹⁷⁾

결국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편의와 복지, 안전, 정보 전달, 행위유도를 위한 시설물로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인간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적 공공디자인 요소이며, 기능성과 조화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도시 구성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2-3-2.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요소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한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¹⁸⁾의 Part.3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구현 기본방향을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요소로 정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요소

요소의 명칭	요소의 내용
기능성	불필요한 장식성보다 기능의 최적화를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통합성	시설물간 연계와 통합으로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디자인
안전성	사용자의 안전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보편성	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
환경성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의 디자인
연속성	표준화를 통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디자인
정체성	서울형 공공시설물 적용으로 정체성을 구현하는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요소는 단순한 미적 기준을 넘어, 기능성, 안전성, 환경성 등 물리적 요건과 더불어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을 유도하는 핵심 설계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공시설물이 도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며, 시민의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환경적 매개요소로 기능한다. 특히 이는 형태심리학의 시각적 질서와 인지적 안정감, 색채심리학의 정서 조절과 쾌적성, 환경심리학의 행동 유도성과 사회적 교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물리적 효율성과 심리적 만족을 통합적으로 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2496&zancYnChk=0#0000>

16)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정책과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12, Vol.11, No.1, p.136-137.

17) 윤종영 외, 『공공디자인기획론』, 삼성출판사, 2012, p.32

18)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2017, p.100.

3. 사례 조사 및 분석

3-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사례 조사 개요

본 연구의 사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관찰 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과 같은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광장, 공원, 거리, 교통공간 등 환경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도시의 공공시설물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를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¹⁹⁾ 방법으로 분석하며, 형태심리학, 색채심리학, 환경심리학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형태적, 색채적, 환경적의 세 가지 기준을 분석에 적용한다.(표 2 참조)

[표 2]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의 분석 기준

구분	분석 항목	세부 내용
형태적 분석	구조 형태	직선, 곡선, 비정형 형태의 시각적 인지와 구조적 안정성 분석
	공간 질서감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원리에 따른 시각적 질서와 통일성 분석
	리듬 및 중심성	형태 간 리듬, 균형, 시각적 초점 형성 분석
색채적 분석	색상 계열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중성색 구성의 정서적 특성 분석
	명도, 채도 대비	명도와 채도 대비에 따른 시각적 자극 수준 분석
	색채 조화	주변 환경과의 색상 조화와 시각적 연계성 분석
환경적 분석	개방성 및 시야 구조	개방감, 시야 확보, 경계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 분석
	물리적 요소	조명 밝기, 색온도, 재질 질감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특성 분석
	자연요소 및 접근성	녹지, 수공간, 식생 연계, 접근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요소 분석

각 사례는 구조형태, 색상 체계, 공간구성, 조명 및 자연요소 등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안정감, 활력감, 회복감)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례별 이미지, 현장사진 등 시각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 개념적으로 유사한 내용은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사례가 지니는 형태적, 색채적, 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19) 질적 내용분석은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환경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한 접근으로, 이용자의 심리적 경험과 공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부합한다.

3-2.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한 심리적 영향 분석

3-2-1. 형태적 요소와 심리적 영향

형태적 구성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가장 근본적인 시각적 체계로서, 시민이 공간을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 단순하고 조화로운 형태는 심리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비정형적이거나 역동적인 형태는 시각적 흥미와 활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심리적 안정형 시설물은 대체로 수평적 구조와 부드러운 곡선형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공간 내 질서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활력형 시설물에서는 기하학적 리듬이나 비대칭적 구조가 시각적 자극을 강화하여 활력과 개방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도시광장이나 보행공간에 설치된 조형물, 조명 구조물 등은 시각적 긴장감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심리적 회복형 시설물은 자연적 형태(곡선, 유기적 패턴, 비정형적 경계 등)를 반영하여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고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태심리학의 근거와 일치한다. 즉, “인간은 단순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선택하게 되며, 불완전한 형태보다는 완전한 형태를 선호하는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알 수 있다”²⁰⁾는 게슈탈트 시지각의 원리에 따라, 형태적 일관성과 완결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 결국 형태는 단순한 시각적 미학이 아니라, 공공공간의 심리적 안정성과 정서적 반응을 매개하는 중심적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 표 3 참조)

3-2-2. 색채 요소와 심리적 영향

색채는 공공시설물의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요 매개로, 시민의 감정 및 행동 반응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 색채는 시설물의 기능과 공간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색채의 조화와 대비 수준이 심리적 안정감과 활력감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 차일권, ‘게슈탈트론에 따른 패키지디자인 인지 연구 - 사례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17, Vol.18, No.51, p.83.

[표 3] 형태적 요소와 심리적 영향 사례조사

구분	심리적 안정형 시설물	심리적 활력형 시설물	심리적 회복형 시설물
국내	명칭(소재지) 오목공원(서울) 주요 내용 평탄한 잔디광장과 직선형 산책로로 구성된 단순한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시설물과 식재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이용 동선이 명확. 심리적 특성 수평적 구조와 규칙적 배치가 시각적 질서감과 안정감을 형성. 예측 가능한 공간 구조가 심리적 편안함을 유도. 이미지  21)	명칭(소재지) 포항 스페이스워크(포항) 주요 내용 비정형적 스틸 구조의 보행형 조형물로, 곡선과 나선형 형태를 통해 입체적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LED 조명으로 시각적 리듬과 대비를 강조. 심리적 특성 비대칭적 곡선 구조가 시각적 자극과 공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며, 이용자에게 활력과 개방감을 부여하고 정서적 흥분 및 공간 참여 욕구를 촉진. 이미지  22)	명칭(소재지) 서울로 7017(서울) 주요 내용 기존 고가도로를 보행 중심의 녹지 공공공간으로 재생, 도심 속 자연 경험을 제공. 식재, 조명, 휴게시설이 어우러진 선형보행축이 도심의 새로운 회복형 경관을 형성. 심리적 특성 도심 속에서도 자연요소를 경험할 수 있어 정서적 이완과 주의 회복을 촉진. 보행 리듬과 개방적 시야가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감을 강화. 이미지  23)
국외	명칭(소재지) Superkilen Urban Park (덴마크 코펜하겐) 주요 내용 유기적 곡선형 보행 공간, 수평 리듬을 강조한 바닥페이빙 디자인과 가로시설물 설치. 심리적 특성 수평적 구조와 부드러운 곡선이 시각적 질서감을 형성하며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 이미지  24)	명칭(소재지) Flatiron South Public Plaza (미국 뉴욕) 주요 내용 비정형 아치 구조와 LED 조명으로 구성된 참여형 설치물. 보행자와 상호작용하는 조명형 시설로, 시각적 자극이 강함. 심리적 특성 비대칭적 리듬과 색채 대비를 통해 공간의 에너지와 개방감을 높이며, 활동적 정서를 유도. 이미지  25)	명칭(소재지) Little Island (미국 뉴욕) 주요 내용 튜립형 기둥이 지지하는 수상 공원으로, 물결형 곡선 지형과 완만한 보행 동선이 어우러진 비정형 공공 공간. 심리적 특성 비정형 지형과 부드러운 곡선 동선이 시각적 질서감을 형성하며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을 유도. 이미지  26)

1) 심리적 안정형 색채 구성은 중성색(회색, 베이지,

- 21) SPACE, 회랑과 의자가 만드는 나의 공원: 오목공원 리노베이션, (2025.10.16) https://vmospace.com/report/report_view.html?base_seq=MzlxNg==
- 22) 포스코그룹 뉴스룸, 스페이스워크(Space Walk)너의 정체가 무엇이나!, (2025.10.16) <https://newsroom.posco.com/kr/스페이스워크space-walk-너의-정체가-무엇이나/>
- 23) MVRDV, Seoullo 7017 Skygarden, (2025.10. 16) <https://www.mvrdv.com/projects/208/seoullo-7017-skygarden>
- 24) archdaily, Superkilen, (2025.10.16) <https://www.archdaily.com/286223/superkilen-topotek-1-big-architects-superflex>
- 25) LOT, Flatiron Skyline, (2025.10.16) <https://lot-arch.com/works/flatiron/>
- 26) WLA, Little Island, (2025.11.11) <https://worldlandscapearchitect.com/little-island-new-york-usa-mnla/?v=dcf0d7d2cd12>

아이보리 계열)과 저채도 색상(그레이블루, 올리브그린, 페일톤 등)을 중심으로 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색채는 도시 환경 속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심리적 활력형 색채 구성은 적색, 주황, 황색, 청색, 청록 등 고채도 색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활력과 집중, 사회적 에너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색채는 강한 대비와 명도 차이를 통해 시각적 리듬과 역동성을 형성하며, 이용자의 주의 집중, 행동 반응, 참여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밝고 생동감 있는 색조의 조합은 도시 공간 속에서 에너지와 개방감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서 상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심리적 회복형 색채 구성은 녹지와 수공간 등 자

[표 4] 색채적 요소와 심리적 영향 사례조사

구분	심리적 안정형 시설물	심리적 활력형 시설물	심리적 회복형 시설물
국내	명칭(소재지) 서울로 7017(서울)	명칭(소재지) DDP(서울)	명칭(소재지) 경의선 숲길(서울)
	주요 내용 노출 콘크리트로 구성된 원형 구조물과 식재가 시각적 대비를 완화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공간감 형성.	주요 내용 건물과 보행로 벽면에 컬러 라이트(미디어아트) 적용.	주요 내용 폐철도 지상을 리뉴얼한 선형 공원으로, 보행로, 수공간, 식재 등 도시 속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
	심리적 특성 회색이 질서감과 안정감을 형성, 페일톤의 핑크 계열이 정서적 온기와 친밀감을 형성, 녹색 식재는 전체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	심리적 특성 고채도 색상은 이용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주의집중과 자극 반응을 유발하여 심리적 활력을 높이며, 색의 변화와 리듬이 공간적 에너지와 사회적 교류 욕구를 자극.	심리적 특성 저채도의 자연색인 녹색, 갈색, 회색이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유도하며, 평온함과 휴식, 치유의 감정을 형성.
국외	이미지  27)	이미지  28)	이미지  29)
	명칭(소재지) Forumtorget Urban Lounge (스웨덴 업살라)	명칭(소재지) Superkilen Urban Park (덴마크 코펜하겐)	명칭(소재지) High Line (미국 뉴욕)
	주요 내용 곡선형 벤치를 중심으로 조성된 광장으로, 콘크리트 벤치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아간에는 간접조명 사용.	주요 내용 광장과 보행로 전역에 고채도 계열의 바닥 페이빙과 공공시설물을 배치.	주요 내용 폐철도를 개조해 조성된 선형 공원으로, 조경과 철재, 목재 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된 보행로와 휴식공간으로 구성.
	심리적 특성 밝은 회색과 중성 톤은 시각적 자극을 줄여 안정감과 균형감을 형성, 따뜻한 간접조명은 정서적 온기와 개방감을 더해 심리적 평온함을 유도.	심리적 특성 강렬한 색 대비가 시각적 자극과 공간 인지력을 높여 이용자의 활동성, 참여도, 사회적 교류를 촉진, 색채의 리듬이 도시 공간에 심리적 에너지를 부여.	심리적 특성 조경의 저채도 녹색과 시설물의 갈색이 심리적 회복과 안정감을 강화하고, 도심 속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을 통해 정서적 치유감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제공.
	이미지  30)	이미지  31)	이미지  32)

연 환경의 색감을 반영한 청록, 연갈색 계열의 저채도

- 27) MVRDV, Seouillo 7017 Skygarden, (2025.11. 11)
<https://www.mvrdv.com/projects/208/seouillo-7017-skygarden>
- 28) DDP,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 (2025.11. 11)
<https://www.ddp.or.kr/index.html?menu=802>
- 29) brunch, 경의선 숲길의 세 가지 매력, (2025. 10.16)
<https://brunch.co.kr/@scape/4>
- 30) archdaily, White Arkitekter Transforms a Swedish Square with 65 Meter Bench, (2025.11. 11)
<https://www.archdaily.com/911510/white-arkitekter-transforms-a-swedish-square-with-65-meter-bench>
- 31) archdaily, Superkilen, (2025.10.16)
<https://www.archdaily.com/286223/superkilen-topotek-1-big-architects-superflex>
- 32) landscapeperformance, High Line, (2025.10. 16)
https://www.landscapeperformance.org/case-study-briefs/high-line?utm_source=chatgpt.com

색상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감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형성하여 공간을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감각적 치유와 심리적 회복의 장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뜻한 흙빛과 부드러운 청록빛의 조화는 도심 속에서도 자연에 둘러싸인 듯한 심리적 평온함과 안정된 정신상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색채심리학의 이론 즉, 따뜻한 색조가 활력을, 차가운 색조가 안정감을, 중성색이 조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색채는 공공시설물의 기능적 매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하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 표 4 참조)

3-2-3. 환경적 요소와 심리적 영향

환경적 요인은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배치와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용자의 체험과 정서 반응을 규정하는

[표 5] 환경적 요소와 심리적 영향 사례조사

구분	심리적 안정형 시설물	심리적 활력형 시설물	심리적 회복형 시설물
국내	명칭(소재지) 청계천(서울)	명칭(소재지)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서울)	명칭(소재지) 부산시민공원(부산)
	주요 내용 복개하천을 복원, 조성한 수변 보행 공간으로, 석재 포장과 돌 미감이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 야간에는 조명과 수면의 반사빛의 조화.	주요 내용 한강 반포대교 교량 상하류 구간에 설치된 교량분수로, 음악과 조명, 대형 물줄기 연출이 결합.	주요 내용 옛 미군기지 부지를 녹지와 수변, 숲길로 연결된 개방형 공원으로 재생, 곡선형 산책로와 오픈 스카이라인이 자연친화적 공간구성.
	심리적 특성 간접조명과 석재 포장이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켜 공간의 온도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 물빛과 조명의 반사가 어우러져 이용자에게 심리적 휴식과 회복감을 제공.	심리적 특성 밝은 컬러 조명과 다변화된 물줄기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여, 공간을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활동성, 집중력, 사회적 교류를 유도.	심리적 특성 풍부한 자연요소가 심리적 피로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높이며, 개방된 시야와 시각적 투명성이 이완과 회복감을 촉진.
국외	명칭(소재지) Namba Parks Rooftop Garden (일본 오사카)	명칭(소재지) PRISMATICA (캐나다 몬트리올)	명칭(소재지) Maggie Daley Park (미국 시카고)
	주요 내용 상업시설 옥상에 조성된 루프탑 정원으로, 조경, 목재와 석재 재질의 바닥,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적 공간감을 형성.	주요 내용 빛을 반사하고 색을 변화시키는 대형 프리즘 설치물들을 야외 광장에 배치.	주요 내용 호수와 연결된 개방형 공원으로 대형 잔디광장, 수변 경관, 자연지형이 결합된 자연친화적 녹지 공간으로 구성.
	심리적 특성 간접조명이 시각적 자극을 완화하고 목재, 석재의 질감이 공간의 온도감과 안정감을 높이고, 따뜻한 조명톤과 녹색 조경의 조화로 이용자에게 심리적 휴식과 회복감을 제공.	심리적 특성 고채도 컬러라이트와 반사 재질이 이용자의 시선을 끌고, 색의 변화가 활동성 및 집중력을 유도하며 공간을 역동적이고 참여적 환경으로 인식.	심리적 특성 자연적 감각 요소가 심리적 피로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개방된 시야와 시각적 투명성이 불안을 완화하고 자연 속 몰입을 통해 이완과 회복감을 촉진.
	이미지  33)	이미지  34)	이미지  35)
	이미지  36)	이미지  37)	이미지  38)

핵심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환경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인간, 환경 상호작용의 개념과 맞닿

33) 내손안에서서울, 여름엔 청계천 갈 수(水)밖에! 그늘막부터 반딧불 조명까지, (2025.10.16.)

34) 내손안에서서울, 피크닉 하기 좋은 봄밤, 무지개빛 물든 반포한강공원으로 떠나요, (2025.10.16)

35) VISIT BUSAN, 부산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쉼터, 부산시민공원, (2025.10.16) https://www.visitbusan.et/kr/index.do?lang_cd=ko&menuCd=DOM_000000201001001000&uc_seq=354

36) NANCAI, Enjoy an Evening to Night Walk at the Oasis of Namba, "Parks Garden", (2025. 10.16) <https://www.howto-osaka.com/en/features/features122/>

37) QDSI, PRISMATICA, (2025.10.16.) <https://qdsinternational.com/en/installations/prismatica/>

38) Chicago Park District, Maggie Daley Park, (2025.10.16) <https://www.chicagoparkdistrict.com/parks-facilities/maggie-daley-park>

아 있으며,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요소(빛, 재질, 개방감, 자연요소)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회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5 참조)

1) 심리적 안정형 시설물에서는 빛과 재질 요소가 공간의 정서적 분위기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드러운 간접조명은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유도하며, 목재, 석재 등 자연친화적 재질은 공간의 온도감을 높여 이용자에게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고 빛의 강도와 재료의 질감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간에 시각적 질서감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안정형 시설물은 빛과 재질의 조합을 통해 시각적 균형과 정서적 완화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활력형 시설물에서는 빛과 재질의 자극성이 공간의 활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밝은

백색광이나 컬러 조명은 공간의 개방감과 역동성을 강화하였으며, 금속·유리 등 인공적 재질은 도시적 세련미를 제공하면서 각성 효과와 사회적 에너지를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정적 안정보다 활동성, 집중력, 사회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물리적 자극 요소가 강할수록 이용자는 공간을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심리적 회복형 시설물은 자연요소의 도입과 개방감, 시각적 투명성을 통해 정서적 이완과 심리적 회복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경, 수경, 자연광, 바람 등 감각적 자극은 이용자의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쾌적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공간이 폐쇄적일수록 불안감이 증가하고 반대로 시야 확보가 용이할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방적 환경은 물리적 피로를 감소시키고, 이용자에게 자연 속에서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회복형 경험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요소의 구성과 조합 방식은 이용자의 감정 상태와 체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각각의 환경적 특성은 안정, 활력, 회복이라는 상이한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3. 유형별 특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향성

사례를 통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환경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종합적인 심리적 경험을 형성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형태, 색채, 환경적 요소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러한 유형화 결과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판단을 넘어, 이용자의 심리적 상태와 공간적 맥락에 적합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디자인은 개별 요소의 단순한 미적 조합이 아니라,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종합적 환경설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결과는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이 물리적 편의성뿐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복지와 정서적 만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면, 첫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단계에서는 형태, 색채, 환경 요소를

[표 6]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

구분	주요 특성	주요 심리효과	주요 공간
심리적 안정형	부드러운 곡선형 구조 및 수평적 구조, 저채도 색상(중성색, 페일톤), 따뜻한 간접조명, 자연 재료 (목재, 석재 등), 질서감 높은 배치	안정감, 편안함, 신뢰감, 예측 가능한 공간 인지	공원, 휴식 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
심리적 활력형	비정형 혹은 비대칭 구조, 기하학적 리듬, 고채도 색상, 명확한 대비(명도, 색채), 밝은 백색광 및 컬러 조명, 인공적 재질(금속, 유리 등)	활력, 자극, 집중, 개방감, 사회적 교류 촉진	광장, 거리, 보행로, 조형물 설치 공간
심리적 회복형	자연적 형태(유기적 패턴, 곡선), 청록·갈색 계열의 저채도 색채, 개방된 시야 및 시각적 투명성, 조경 및 수공간 연계 등 자연요소 풍부	휴식, 회복, 심리적 치유 및 이완, 스트레스 완화	생태공원, 하천변, 복합문화공간, 선형 공원, 도심 속 녹지공간

심리적 경험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해야 하며, 예를 들어 도심 내 휴식공간에서는 안정형 요소(부드러운 형태, 저채도 색상, 자연재질)를 강화하고, 활동 중심 공간에서는 활력형 요소(역동적 형태, 고채도 색상, 인공 조명)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정서 상태에 대응하는 전략적 디자인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 수립 시에는 시설물의 물리적 기준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지표를 포함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시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회복형 디자인의 중요성은 도시 재생사업이나 녹지계획에서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팬데믹 이후 도시민의 정서적 피로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공공디자인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시설물이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주요 디자인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국내외 공공시설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디자인 요소가 실제로 어떠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지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셋째, 문헌과 사례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환경요소를 형

태, 색채, 환경의 세 축으로 체계화하고, 심리적 안정형, 활력형, 회복형의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적 안정, 활력, 회복을 촉진하는 심리적 환경 조성의 매개체로 기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공공디자인이 물리적 편의성을 넘어 정신적 복지와 심리적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미적 가치나 기능적 효율성에 치중해온 한계를 넘어, 심리학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능을 해석함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형태, 색채, 환경의 세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심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틀을 제시하였으며, 도출된 세 가지 유형(안정형, 활력형, 회복형)은 향후 정서적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의 기초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심리적 기능을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확장함으로써, 향후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심리적 복지와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 방향과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김건동,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에 따른 정보의 의미 생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 문성원,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6
- 방미청, 강재철, '도시공원에서 청년층의 회복 환경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 중 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리서치, 2021
- 백주하, 김혜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 2017
- 윤종영 외, 『공공디자인기획론』, 삼성출판사, 2012
- 이도선, 박준휘, 'CPTED 적용에 있어서 색채 활용에 대한 이론적 연구', 셉테드학회지, 2018,
- 이재용,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색채 활용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채영, 박연선, '색채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개인의 스트레스 완화비교', 기초조형학연구
- 임은정,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 주택도시연구, 2021
-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정책과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12
- 차일권, '게슈탈트론에 따른 패키지디자인 인지 연구 - 사례분석',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17
- 최민석, '환경심리학 관점으로 한 수변공원 착좌시설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3
- 홍근주, 이동희, 김수미, 이범천, 안성관, '컬러테라피 가 스트레스와 뇌파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뷰티 화장품학술지, 2009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065호)
- en.wikipedia.org
- vmospace.com
- www.archaily.com
- newsroom.posco.com
- lot-arch.com
- www.mvrdv.com
- worldlandscapearchitect.com
- www.ddp.or.kr
- brunch.co.kr
- www.landscapeperformance.org
- mediahub.seoul.go.kr
- www.howto-osaka.com
- mediahub.seoul.go.kr
- qdsinternational.com
- www.visitbusan.net
- www.chicagoparkdistrict.com